

# 고감도와 뜸들이기

조 속 환  
서강대 영어과 교수



‘고 감도’라는 말은 이제 그 본연의 ‘짜릿’함을 잃었다. 최근, 광고문구 등 여기저기에서 애용 내지 남용되었기 때문이다. 문화, 사회와 늘 함께 호흡하는 언어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진화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좋은 단어의 의미가 남용되어 급기야 그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때면 안타까워 한다. 가령, ‘신선한 충격’, ‘홀로서기’ 등등의 표현 역시 처음 쓰였을 때의 그 독특한 의미를 잃은 지 오래이다.

‘고감도’라는 표현이 우리 사이에 자주 쓰인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는지도 모른다. 우리말 단어 중에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라고 한다. 우리말을 잘 모르는 서양사람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느낌을 물으면 많이들 스페인어 같이 들린다고 대답한다. 이 답변의 속뜻은 사실 긍정적이

기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한국어가 다소 성급히 발화된 ‘소음’같이 들린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성급한 한국인’에 대한 에피소드는 다른 면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편이다. 모 일간지에서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학회참석차 해외에 가서도 논문 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저명한 학자와 기념사진부터 찍는 학자들이 있으며, 또 해외관광객들 중에는 유명한 관광지에 도착하기 무섭게 그곳의 숨은 역사나 여러 사실을 섭렵하기도 전에 우선 기념품이나 선물부터 구입하느라 분주한 관광객들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얼마전 라디오를 들으니, 우리 한국인은 사탕을 주면 빨기보다는 대개 깨물어 먹기 일쑤라고 한다. 과연, 우리의 정서가 ‘은근’과 ‘끈기’로 대변되었던 때가 있긴 있었던가.

최근,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반년도 안 되어 아현동 도시가스가 대낮 폭발하더니 너

달쯤 지났을까, 대구 지하철 공사장이 폭발했다. 이러한 불행한 보도를 접하며, 나는 끊임없는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성급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었다. 공사장의 천공작업 과정중 도시가스관이 파손되어 대량 누출된 LPG 가스가 화근이었다는 소식이 언뜻 믿기지 않았다. 설마, 땅 속에 여기저기 있을 가스관의 구조를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사고 다음 며칠간 접한 일간지의 보도는 나를 더욱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다. 공사책임자들이 지하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면도 없이 땅을 파헤쳤다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조선일보』, 1995년 4월 30일자, 1면 보도). 설상가상, 우리나라 지하에 묻혀 있는 가스관은 또 언제 어디에서 파손될지 모를 정도로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있단다. 한편, 일본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들으니 우리의 모습이 더욱 부끄러워졌다. 그네들의 지하는 오랜간 치밀한 계획 아래 건설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령 공사장의 천공작업을 할 경우 정밀검토 과정을 거쳐 무엇보다도 ‘안전수칙’을 확고히 지킨다고 한다. 지하의 설계도면 한 장 없이 무조건 작업에 들어간 우리네 건설문화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성급한 우리의 얼굴은 대학 현장에서도 흔히 눈에 뜨인다. 가령, 학위논문 심사가 있기 겨우 며칠 전에 논문이 도착한다든가, 또는 전공분야에 따라 물론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학회 발표일을 겨우 한 달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발표대상 논문을 짧은 시간 내에 선정하는 일 등은 주변

에 자주 보인다. 논문심사일 한두 달 이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하고, 학회 논문 제출일을 최소한 6~7개월 전에 공고한 후 3~4개월 전에 논문선정을 하는 선진국의 유명 대학 및 학회 등과 비교하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조급히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밖에도 우리 특유의 ‘성급성’이 빚은 불합리한 양상이 도처에 숨어 있다. 일례로, 연구비를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다. 많은 국내 연구재단은 연구기간 종료 후 대개 6개월 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정은 학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조급증’이다. 학자들간에 잘 알려져 있듯이, 특히 국제학술지에 논문 한 편이 게재되려면 보통 1년 반 내지 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보통, 논문 제출 후 2~3개월쯤 되면 논문 심사결과가 오는데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일지라도 대개 논문 수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정기간이 필요하고, 수정된 후 재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최소한 1년 정도는 논문심사 절차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 한 편의 논문이라도 치밀한 계획 아래 정성과 시간을 들여 작업하는 국제학술지 편집인들의 자세를 통해 우리의 성급한 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대개 ‘빨리빨리’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한편 반드시 서둘러야 될 일이 오히려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대학현장에서 볼 수 있다. 가령, 학생들의 과제물과 시험결과 및 성적 등은 가능한 서둘러 학생들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나는 이러한 지극히 기본적인 교수의 임무가 국내의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대학 몇몇에서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많은 학교에 중간고사 성적 통보 정도는 아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결국, 이런 태평세월 제도 속에 많은 교수들이 시험과 숙제 채점을 학기말까지 미루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잠재력은 다양한 자극과 도전 속에 최대로 발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속도보다는 훨씬 서둘러 학생개개인의 발전상황을 관찰하면서 많은 대학을 통해 그들의 발달을 꾀해야 한다.

서둘렀어야 될 일이 오히려 지체된 대학의 면모는 물론 이밖에도 많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인지과학', '여성학' 등 신학문이나 새로운 이론의 수용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자세를 들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조심성이나 신중한 태도는 당연히 긍정적이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조심한 나머지 새로운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전에 무조건 배타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분위기가 우리 학자들간에 없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가령,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알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지난 7~8년 동안 인지과학이라는 신학문은 이미 서구에서 급성장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최근 국내 몇몇 대학에 인지과학, 여성학 등이 학부 및 대학

원 과정이나 연구소의 연구과제 형태로 신설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만시지감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학의 학문 발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이 두 분야는 여러 인접학문이 모여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의 학문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너무 오랜 세월 국내의 대학에 팽배해진 '학과 이기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마련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긴다.

상식적으로, 어떤 과업을 수행하건 이상적인 방법은 일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조절된 속도를 유지하는 일일 것이다. 최근,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여러 교육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얼마전, 국제대학이 설립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는 지 며칠 안 되어 국제고등학교가 탄생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급기야 오늘(6월 1일)은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 국민학교 영어조기교육 등 다양한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인성교육강화, 입시지옥해소, 열린교육, 평생학습 등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으나, 한편 걱정과 불안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교육개혁은 해방후 10여 차례나 단행되었다고 한다. 특히 대입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되었다고 한다. 이런 교육사 속에 우리는 '개혁'이라는 것에 이미 무감각해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또한 '세계화' 지향은 만시지감이 드는 반면, 1~2년 내에 시작한다는 국제학교 설립, 영어조기교육 등은 다소 조급한 듯한 느낌이 든다. 목표는 계속 유지하되 그 실

천방법은 많은 시간 속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된 원리원칙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작업이 1~2년의 짧은 시간 속에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 조바심이 난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과가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1990년대 초반부터 퍼지기 시작했다. 1992년 여름 언어학과와의 한 교수께 직접 여쭙어 보니, 폐지 여부에 대한 회의가 연일 있다고 말씀하셨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지 5년이나 지난 지금, 하버드는 아직도 폐지 여부에 대해 쉽게 결정하지 않고 있다. 매일 짓는 밥도 정성으로 뜬을 잘 들이지 않으면 설거나, 죽이 되거나, 이삼충밥이 되기 일쑤다. 인간교육의 현장인 교육기관의 정책에 정성과 시간이 적절히 들여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가스 폭발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고감도와 뜬들이기의 사이에서 어떻게 줄다리기를 해야할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교육현장에도 화사한 꽃이 만발하리라. ■

---

조속환/서강대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켈거리 대학에서 언어학 석사,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 인지과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서강대 영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서울대와 하버드 대학 언어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편저로 『언어학과 인지』 등이 있고, "Directionality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